

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T.888-6931~8 (www.busancidc.or.kr)

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T.888-3351~6

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하세요!

일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진 진드기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서 감염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.
진드기는 풀이 있는 장소 뿐 아니라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모든 환경에 널리 분포하니 야외활동 시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
이렇게 예방하세요!

야외활동
전



피부 노출 최소화 하기



진드기 기피제 뿌리기



풀숲 활동 피하기



반려동물도 함께 주의
반려동물에게 붙은 진드기가
사람을 물 수도 있습니다.

야외활동
후



샤워하기



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

TIP! 진드기를 발견했을 경우 손으로 떼어내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핀셋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.



야외활동 시 입은 옷은
털고 분리하여 세탁



증상 관찰

1~3주 이내 의심증상
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



가을철 진드기에 감염되어 생기는 질환 중 가장 흔한 병은 쯤쯤가무시증으로 진드기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나타나고 발열, 근육통 등의 증상도 나타납니다. 부산에서는 매년 400여명의 쯤쯤가무시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